

탄소시장 동향 브리프

2026년 6월 1주

외연 확장 속 규제 수렴: 산림 크레딧 거부와 규제 안전 자산으로의 시장 재편

- 산림 회피형 크레딧 거부와 제거 기반 포트폴리오 전환 흐름 가시화
 - 고품질 크레딧 공급 급감에 따른 CCP 라벨의 규제 안전 자산화 및 오프테이크 전략 필요성 부상
-

외연 확장 속 규제 수렴: 산림 크레딧 거부와 규제 안전 자산으로의 시장 재편

EU가 CORSIA 1단계 크레딧 적격성을 제한하는 초안을 검토하면서 항공 부문의 공급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ICVCM 역시 HFLD 크레딧 승인을 거부한 반면에, 재생에너지와 맹그로브 복원 프로토콜 등에는 조건부 및 최종 승인을 부여했다. 이 두 기구의 행보는 탄소시장 무결성 기준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그동안 산림 보존에 의존해온 회피형 크레딧 중심의 시장 구조는 바이오차, 직접공기포집 등 제거 기반 크레딧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CCP 라벨 크레딧이 규제 안전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단기 스팟 조달에서 벗어나 고품질 크레딧 중심의 오프테이크 및 공급망 재편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EU, CORSIA 1단계 크레딧 대부분 적격 제외 검토에 항공 부문 공급 충격 가시화

EU가 CORSIA 1단계 크레딧(CP1) 적격성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HFLD 방법론 기반 크레딧과, 비재생 바이오매스 비율이 국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크레딧을 적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CP1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물량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며, 전체 발행량 3,300만 톤 중 약 2,500만 톤을 차지하는 REDD+ 프로젝트 역시 HFLD 방법론 기반으로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EU는 "탄소 재고의 단순한 존재에 크레딧을 부여하는 방식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이미 유럽 항공사들이 조달을 관망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공급 충격에 대한 선제 대응 움직임이 감지된다.

ICVCM, GCC 2.0 CCP 적격 승인한 반면 HFLD 크레딧은 재차 각하

ICVCM이 5월 GCC 2.0(Global Carbon Council, 글로벌탄소협의회) CCP 적격 프로그램으로 승인했다. GCC 2.0은 비밀유지 조항, 비영속성 리스크 평가, 크레딧 기간 갱신, 불확실성 처리 및 세이프가드 절차 등을 보강한 끝에 고무결성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로써 GCC 2.0의 방법론들은 이중 인증 심사 절차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방법론 차원에서는 풍력·태양광·지열·소수력 등을 포괄하는 Verra의 재생에너지 방법론(VMR0017 v1.0)이 조건부 CCP 승인을 받았으며, 석탄광 메탄 감축 방법론(ACM0008) 역시 조건부 승인됐다. 기후 솔루션 인증 기업 Isometric의 맹그로브 복원 프로토콜 v1.0은 CCP를 획득했으며, 2030년까지 최대 200만 톤의 제거 크레딧 발행이 기대되는 반면, 개도국 산림보전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 ART TREES v2.0의 HFLD크레딧은 승인이 거부됐다.

용어 해설

***CCP** : Core Carbon Principles, 핵심 탄소 원칙

***ICVCM** : Integrity Council for the Voluntary Carbon Market,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

***HFLD** : High Forest Low Deforestation, 고산림·저산림 훼손

시사점

수급 불균형 심화에 따른 'CCP 라벨'의 규제 안전 자산화 및 선제적 조달 필요성

EU 초안이 반영될 경우, CORSIA 1단계 의무 이행에 활용 가능한 크레딧 공급은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항공사들이 조달을 관망하고 아시아 항공사들 역시 EU의 최종 입장을 기다리는 기조인 가운데, 시장 전반의 수급 불균형 심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국면에서 고품질을 입증한 CCP 라벨 크레딧은 사실상 '규제 안전 자산'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급이 제한적인 만큼 장기 공급 계약 등 선제적 조달 전략의 중요성이 커지는 실정이다. 반면 단기 스팟 위주의 조달 관행은 향후 기업에게 오히려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의 혼란은 시장 붕괴가 아닌 크레딧의 '옥석 가리기' 과정이며, 무결성 기준의 수렴은 장기적으로 VCM 신뢰 회복의 전제 조건이 된다. 이는 조달 기준과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재편하는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산림 '회피형'에서 '제거'로의 구조적 전환

ICVCM의 HFLD 승인 거부와 EU의 적격성 제외 검토는 독립적인 사건이 아닌, 탄소시장의 무결성 기준이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두 결정 모두 실질적인 인위적 조치 없이 산림을 보존하는 '회피형' 방법론의 추가성 입증 한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탄소시장이 본격적인 활성화 국면을 모색하는 시점에 시장이 외연을 넓히는 것과 동시에 내부 기준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계 입장에서는 그간 산림 크레딧에 의존해온 탄소 포트폴리오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바이오차·직접공기포집·맹그로브 복원 등 내구성 있는 제거 기반 크레딧으로의 흐름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ICVCM이 기후 솔루션 인증 기업 Isometric의 맹그로브 복원 프로토콜에 CCP를 부여하고 재생에너지 방법론에 조건부 승인을 내린 것은 그 맥락에서 함께 주목할 만한 변화로 평가된다.

관련 기사 및 참고자료

- 1) New EU Draft Rules Could Disqualify Almost All Existing CORSIA Phase 1 Credits
- 2) Global Carbon Council Earns Highest Integrity Status As ICVCM Announces May Decisions